“불자 89% ‘조력존엄사’ 찬성…공론화 이뤄져야”

불교아카데미 창립 23주년 세미나서
‘조력존엄사’ 불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합법화 찬성 의견, 타 기관보다 높아
‘자살’ 논쟁 有…가이드 라인 제시돼야
대안으로 ‘단식존엄사’ 논의도 필요해



옥복연 원장이 불교아카데미 창립 23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조력존엄사 관련 불자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방식이다. 최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존엄한 죽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고, 올해 헌법재판소가 ‘의료조력사’ 공개 토론 등을 이어가며 공론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화두가 된 ‘조력존엄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사)불교아카데미(원장 옥복연)는 9월 13일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립 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고찰부터 위헌 여부 검토까지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이뤄졌다.

불자들 “조력존엄사 법제화 찬성”

특히 옥복연 원장은 불교계 최초로 출·재가자 384명(비구 73·비구니 76·우바새 96·우바이 109·비불자 30)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력존엄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불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를 짚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옥 소장에 따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응답자의 89.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집단별로 보면 비구 스님이 91.8%로 가장 높았고, 우바이(89.9%)·비구니(85.5%)·우바새(85.4%) 순이었다.

법률안 찬반에 대해서는 89.1%가 찬성했으며, 비구 스님 집단이 91.8%로 법제화에서도 가장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합법화 찬성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 불필요’(40.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죽음의 자기결정권(36.7%)·고통 감소(13.5%)·가족부담 감소(6.2%)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경시 위험’이 3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출재가 집단의 답변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비구·비구니 스님들은 ‘불교 교리 불일치’를, 재가자 집단은 ‘생명 경시 위험’을 꼽았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등 타 기관 조사의 ‘조력존엄사 합법화’ 찬성 응답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보사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으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79%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옥 소장은 “불교인들이 일반인보다 조력존엄사 찬성 응답이 높은 것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집착에서 해방하는 것”이라며 “불교인은 조력조엄사에 대한 경계와 의미를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력존엄사, 불교적으로 합당한가

‘존엄’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조력존엄사는 환자의 결정 아래 의사가 죽음을 처방하는 형태다. 이런 이유로 조력존엄사는 ‘조력 자살’ 또는 ‘의사조력자살’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날 양영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력존엄사’ 주제 발표에서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인 ‘불살생’을 예로 들며 “불살생계의 ‘생명’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함하며, 살생 행위와 이를 돕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락사 문제가 불교 윤리 내에서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도덕적 딜레마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율장〉과 그 주석서에서는 ‘비구가 타인의 죽음을 권유·유도·처방하면 즉결 승단에서 추방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죽음에로의 어떠한 조력도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교는 ‘자비’라는 방편으로 불가피한 살생을 윤리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양 선임연구원은 〈방편경〉의 ‘자비로운 선장’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생에서 선장으로 활동했는데, 하루는 배에 승선한 500명의 상인을 죽이려는 악인을 발견했다. 이에 선장은 자신이 죄업을 감수하더라도 악인을 죽여 500명을 살려 냈다.

양 선임연구원은 “〈방편경〉에 따르면 의도가 순수하고 결과가 압도적으로 유익하면, 그 행위는 방편으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면서 “이를 확장하면 조력존엄사는 자비의 한 방편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지만 판단과 실행에는 보살도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통찰과 지혜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보편적 법제화로 쉽게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식존엄사’ 법제화도 논의를

조력존엄사가 ‘적극적 안락사’보다 온건한 존엄사 방식으로 분류되지만 의료진의 도움으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에 양 선임연구원은 최근 서구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시도되는 ‘단식존엄사’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단식존엄사(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VSED)’는 당사자가 스스로 음식·수분 섭취를 중단해 죽음을 맞는 방식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결정 능력을 가진 성인이 적법하게 선택한 경우 의료진과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과 자택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어머니의 단식존엄사 기록을 담아낸 대만 의사 비류잉의 책 〈단식존엄사〉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식존엄사도 쉽지 않다. 당사자가 자택에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음식물을 중단할 경우, 그 가족이 자살 교사나 방조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양 선임연구원은 “조력존엄사는 불살생계 및 그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단식존엄사는 육체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무상관과 깨어 있는 죽음에 대한 강조와 접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곡기를 끊는 단식존엄사가 법제화되거나 문화적으로도 그 가치와 권리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이를 시행할 사람들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교, ‘죽음준비교육’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무엇이 진정 ‘존엄한 죽음’인지를 알릴 것을 불교계에 주문했다.

양 선임연구원은 “불교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종교다.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가 생로병사에 대한 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죽음준비교육’ 확대다. 필연적 죽음을 대비하고 자신의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웰빙의 증거이고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력존엄사가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있는 만큼 단순 반대나 낙관이 아닌 불교윤리적 가이드 라인의 제시도 제안됐다. 양 선임연구원은 “단식존엄사 등 대안적 방식에 대한 윤리·실천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단 차원의 윤리자문기구를 구성해 병원 윤리위원회와 연계하거나 조력존엄사 등 고위험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몽골 침략 극복 원력 담긴 ‘고려 오백나한도’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12일 지정예고
고려불화 특징 담아낸 秀作
세종 비암사 소조여래좌상도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가피로 이겨 내길 기원하며 조성한 고려불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조성된 ‘고려 오백나한도’를 비롯해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향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입 시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일괄로 제작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으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와 함께 제작된 것이다. 지정예고 대상은 제329원상 주존자(圓上周尊者)를 표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는 고려불화의 특징인 품격 높은 예술성과 신비로운 종교적 감성을 담고 있으며, 남아 있는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지정예고된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제작 시기 및 조각승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불상에서 보이는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 신체 비례, 활달한 선묘(線描) 등 양식적 특징상 16세기 중엽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정예고한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 오백나한도’.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Love is fine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